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 질 병 ● ●

Q 임신 100일정도 된 모돈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를 보입니다. 증세가 나타난 지 5일정도 지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열도 많아 해열제와 소화제만 주입하였습니다. 이것이 패혈증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방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패혈증이라 함은 혈액 속으로 세균이 유입되어 세균에 의한 독이나 세균의 증식과정을 통하여 혈관이 손상되거나 혈액이 근육 속으로 새나오게 되는 현상으로 질문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감염(바이러스 등)에 의한 고열반응으로 사료를 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열제와 영양제의 공급은 모돈이 임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 산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세심히 관찰하시고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Q 수유중 모돈이 발열과 함께 온몸이 벌겍게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일어나고 사료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돈단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돈단독도 변형이 있는지요? 급한 마음에 일단 페니실린 주사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돈단독 증상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돈단독은 돈군에서 비육돈이나 후보돈 등 초산모돈에서 발생하기가 쉬운데 산차가 많은 모돈이나 3개월령 이전의 돼지에게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증상은 관절염형으로 오는 예도 있고 피부에 특이한(다이아몬드형이라 하지요) 담마진 형태로 오거나 또는 심급성형으로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경우(삼내막염형)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우만 가지고 돈단독이라 의심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감염증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우선 해당 모돈의 산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직장체온을 꼭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아무

래도 어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폐니실린 계열(경험적으로는 암피실린 주사제와 같은 속효성제제를 주사하는 것이 좋겠네요)의 약으로 3~4회 치료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임신진단 후 불임판정을 내린 모든에게 호르몬주사를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불임판정은 25일~30일 정도에 판정합니다.) 재발일에 맞춰 5일전에 투입하는게 바른 것인지, 아니면, 불임판정을 내린 후 바로 호르몬주사를 투입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돈육성백신이나 모든백신의 경우 맞은 후 5~7일 동안 항생제 사용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불임판정이 내려졌다면, 바로 호르몬을 주사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수태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규칙적 재발이 가능할 테니까요. 살아 있는 세균이 포함된 백신의 경우 주사하기 3일 전후에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야 하네요. 단콜백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 료 ●

Q 비육초기돈의 사료 중 칼슘첨가제로 불가사리 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호성이 떨어진다면 탈지분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한다면, 과연 칼슘첨가제 사료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채병조 강원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
1. 사료에 칼슘첨가제로는 인산칼슘과 석회석(탄산칼슘)이 품질이나 경제적으로 가장 적당합니다.

2. 조개껍질이나 굴껍질도 칼슘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료원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불가사리분말은 사료원료로 쓸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칼슘공급원이라기 보다는 바다의 장애물로 수집한 것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처리비용(건조 및 분쇄)을 생각하면 석회석(kg당 30원 미만, 칼슘함량 34%정도)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기능성 물질이 혹시 없을까 연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Q 돼지와 관련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DDGS'라고 하는 주정박의 원가상승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채병조 강원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
첫째로 필수아미노산은 아지닌, 라이신, 메치오닌, 히스티딘, 류신, 이소류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발린, 트레오닌 등 10가지입니다. 이중 양돈사료에서는 라이신이 주로 제1 제한아미노산이 됩니다(제한 아미노산이란 사료중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켜도 요구량에 부족되기 쉬운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종류가 많으며 사료 중 어느 정도의 단백질함량이 주어지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주정박의 원가상승에 따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료배합시 어떤 원료사료의 적정단가는 원료간 영양소함량과 가격이 의해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정박이 상대적으로 비싸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양돈**